

# 로컬리티 기록콘텐츠 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

## Directions of Archival Contents Development for Documenting Localities

설 문 원(Moon-Won Seol)\*\*

###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2. 캘리포니아 지역사 콘텐츠      |
| II. 로컬리티 기록콘텐츠의 의의와 유형           | 3. 향토문화전자대전           |
| 1. 로컬리티 기록콘텐츠의 개념                | 4. 국가기록원의 지역콘텐츠       |
| 2. 로컬리티 기록콘텐츠의 유형                | IV. 로컬리티 기록콘텐츠 개발의 방향 |
| III. 로컬리티 기록콘텐츠 사례 분석            | 1. 사례 종합 및 시사점        |
| 1. 남북전쟁기 두 마을 이야기-<br>Valley아카이브 | 2. 개발 방향              |
|                                  | V. 맺음말                |

### 초 록

이 연구는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과 관련된 기록콘텐츠 개발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둘러싼 기록학적 쟁점을 분석함으로써 로컬리티에 기반한 기록콘텐츠의 개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외국 사례로는 벤치마킹이 될 만한 두개의 콘텐츠를 선정하였고, 국내에서는 대표적인 지역사 콘텐츠인 <향토문화전자대전>과 함께 국가기록원 사례를 살펴보았다. 사례분석을 토대로 쟁점을 분석하고 로컬리티 기록콘텐츠 개발전략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점들을 구조적 측면을 중심으로 제안하였다.

키워드: 기록콘텐츠, 지역 콘텐츠, 도큐멘테이션 전략, 로컬리티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issues of archival contents development for documenting local histories and to suggest the directions of contents development based on case studies. The study begins with analysing four cases of archival contents; two foreign cases for benchmarking, and two domestic cases of the Encyclopedia of Korean Local Cultures, and the local contents of National Archives of Korea. Based on these analyses, it discusses the critical issues of the contents development and suggests the directions of archival contents development for documenting localities.

Keywords: Archival contents, Documenting region, Documentation strategy, Locality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30-H00006). 또한 2012년 5월 18일 발표한 “로컬리티 기록콘텐츠 개발의 쟁점”(로컬리티와 로컬리티 기록화 : 이론과 현장의 만남, 부산대 SSK 로컬리티 기록화 연구팀, 명지대 인간과 기록연구단 공동세미나)을 수정 보완한 내용임을 밝힘.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seol@pusan.ac.kr)

• 접수일: 2012년 5월 25일 • 최초심사일: 2012년 6월 1일 • 최종심사일: 2012년 6월 28일

## I. 머리말

“사실이 스스로 말하게 하라”는 말을 통해 실증주의 사학자 랑케는 기록의 객관적이고 엄정한 사용을 강조하였다. 기록학적 관점에서 보면, 랑케는 영국의 기록학자 힐러리 젠킨슨이 주장한 기록의 공정성(impartiality)과 증거의 신성함을 강조하는 것과 같은 연장선에 있다. 이에 비해 E. H. 카는 “사실은 역사가가 허락할 때만 이야기”하며, “사실이란 마대와 같아서 그 안에 무엇인가를 넣을 때까지는 서 있지 못한다”며 랑케를 비판한 바 있다.<sup>1)</sup> 카의 관점을 기록에 적용하면, 기록은 역사가나 아키비스트와 같은 게이트키퍼의 평가와 선별을 통해서만 가치를 발현하며, 일련의 해석과 재현 장치를 통해서만 그 의미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기록을 디지털 콘텐츠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기록을 열람하거나 검색하지 않는 잠재적 이용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서비스(outreach)이자 부가가치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sup>2)</sup> 기록을 재구성하고 여기에 해설과 각종 관련 정보를 부가하여 제공되는 기록콘텐츠에 대해 젠킨슨은 기록의 공정성과 증거의 신성함이 사라졌다고 개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록의 활용성이 강조되고 있고, 또한 디지털 기술이 지원되는 환경에서 기록콘텐츠의 개발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역 특성에 기반한 문화콘텐츠의 개발이 지역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면서 지역의 기록콘텐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에서의 기록콘텐츠 개발은 또한 로컬리티 기록화 전략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로컬리티 기록화는 지역의 중요한 사건이나 인물, 장소 등에 관한 기억이 남겨질 수 있도록 기록을 수집하고 생산하는 것이다.<sup>3)</sup> 기록화 전략은 여러 단계를 거쳐 수행되지만 그 핵심은 무엇을 어떻게 기록으로 남길지 결정하는 것이다. 기록화 전략 자체가 일정한 수집의도와 방향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로컬리티 기록화 전략에 따라 수집된 기록들은 지역사 콘텐츠로 쉽게 재가공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과 관련된 기록콘텐츠 개발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둘러싼 기록학적 쟁점을 분석함으로써 로컬리티에 기반한 기록콘텐츠의 개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외국 사례로는 벤치마킹이 될 만한 두개의 콘텐츠를 선정하였다. 남북전쟁의 두 마을의 기록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The Valley of the Shadow”는 역사 및 관련 분야에서 우수 콘텐츠로 인정받은 사례로서,<sup>4)</sup> 제한된 시기의 특정 주제와 관련된 모범적 콘텐츠로 볼 수 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Calisphere

1) 조지형, 랑케 & 카: 역사의 진실을 찾아서(파주: 김영사, 2006), pp.81-84: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대화다”(한겨레신문, 2011. 5. 2)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475878.html>> [인용 2012. 4. 2].

2) 설문원, “기록정보서비스의 방향과 과제,” 기록인, 여름호, vol 3(2008. 6), pp.10-19 참조. 기록물관리기관의 교육이나 전시활동은 물론 이를 위한 교육콘텐츠나 전시콘텐츠 개발도 아웃리치 서비스에 해당.

3) 설문원, “디지털 환경에서의 로컬리티 기록화 방법론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1권, 제1호(2011. 6), pp.207-230.

는 지역사의 전 시기와 전 주제를 포괄하는 기록콘텐츠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아직 지역 관련 기록콘텐츠 사례가 적은 국내에서는 대표적인 지역사 콘텐츠로 꼽을 수 있는 <향토문화전자대전>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국내에서 기록콘텐츠를 가장 많이 개발하고 있는 국가기록원 사례를 살펴보았다.

사례 분석에서는 특히 각 콘텐츠들이 기록을 활용하고, 배치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였다. 기록화 전략은 기록의 의도적 선별과정을 포함하지만, 이러한 '의도'가 기록콘텐츠 개발에 직접 반영될 경우 기록의 증거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부조적(浮彫的)인 기록의 선별과 활용이 사회 전체의 맥락과는 유리된 역사 해석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가치의 다원화, 가치의 상대성을 강조하는 포스트모더니즘 기록학자들도 기록의 증거가치를 강조하며 기록의 파편적 이용으로 인한 오용을 경계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개발된 기록콘텐츠들의 구조와 내용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신문기사나 잡지, 논문 등 기록 외의 다양한 정보원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살펴보았다. 다만, 네 개의 사례가 개발 목적이나 규모에 있어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각 콘텐츠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분석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대신 각 사례의 특성을 충분히 분석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 II. 로컬리티 기록콘텐츠의 의의와 유형

### 1. 로컬리티 기록콘텐츠의 개념

콘텐츠란 용어는 “각종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디지털 정보를 통칭하여 이르는 말”로서<sup>4)</sup> ‘디지털’이란 말이 붙지 않아도 디지털 콘텐츠를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기록콘텐츠는 디지털화된 기록 자체는 물론 기록이 포함된 모든 디지털 가공 정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기록은 특정 매체나 형식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사진, 음성 및 음향, 동영상 등 다양한 기록이 콘텐츠로 가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록콘텐츠는 연구자에 따라 약간의 개념적 편차를 보인다. 설문원, 김익한은 기록콘텐츠를 광의로 설정하고, 기록의 가공정도에 따라 원자료와 그 맥락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기초콘텐츠

4) 이 프로젝트는 최우수 온라인 디지털 교육 자료로 인정받아 과학단체인 MERLOT이 수여하는 2005 Classics Award를 수상하였고, 2002년에는 “역사교육에 가장 탁월한 기여를 한 교육지원도구”로 인정받아 미국역사협회가 주는 James Harvey Robinson상을 2001년에는 링컨대통령이나 남북전쟁 참전용사에 대한 가장 우수한 영어 학술저작물로 선정되어 Gettysburg College로부터 eLincoln Prize를 받았다. 이 밖에 많은 저널과 역사 관련 사이트에서 우수 콘텐츠로 평가받고 있음. <<http://vshadow.vcdh.virginia.edu/usingvalley/award.html>> [cited 2012. 6. 5].

5) 다음 국어사전. <<http://dic.daum.net/word/>> [인용 2012. 5. 1].

####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3권 제2호)

츠, 기초콘텐츠를 주제별로 분류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구축한 데이터 간의 연계 콘텐츠, 기초콘텐츠와 연계콘텐츠에 대한 해석과 서술정보를 포함한 해석콘텐츠로 구분한 바 있다.<sup>6)</sup> 심성보는 ‘기록정보콘텐츠’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세분화된 고객의 기록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고객의 욕구에 기반하여 추가 제작하여, 기록정보와 함께 결합물이나 연속물의 형태로 조직화하여 배포되는,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형태의 정보”로 정의하였다.<sup>7)</sup> 이 정의에서 기록정보콘텐츠는 기록에 다른 정보를 추가하고 결합하여 재구성한 개체를 의미한다. 이를 이어, 전수진은 기록콘텐츠를 보다 명확하게 제한하고 있다. 즉, “기록과 그 맥락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기본을 이룬 상태에서 그것을 연관관계에 따라 구조화하고 해석을 덧붙임으로써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로 정의함으로써 해석을 통해 기록을 재구성한 콘텐츠로 좁게 정의하고 있다.<sup>8)</sup> 이 연구에서는 협의의 기록콘텐츠 개념을 적용하여, 기록을 활용하되 기록의 구조를 재구성하고 해석을 덧붙여 가공된 콘텐츠를 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로컬리티 기록콘텐츠는 이러한 기록콘텐츠 개념의 하위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로컬리티가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가치 혹은 정체성을 의미한다고 볼 때, 따라서 로컬리티 기록콘텐츠는 “지역에 토대를 둔 행위 주체들의 다양한 활동과 이에 따른 지역의 변화를 증거하는 기록콘텐츠”라고 정의할 수 있다.<sup>9)</sup>

기록콘텐츠를 개발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무엇보다도 기록의 이해도와 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설문원, 김익한은 “개인이나 조직활동의 결과물이자 과정의 산물인 기록 안에는 무수한 지식과 정보가 내재해 있으나, 기록의 존재형식이나 조직방식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매우 복잡하고도 어렵기 때문에 기록의 활용범위를 넓히고 점차 다양해지는 이용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록 안에 담긴 풍부한 정보를 디지털 콘텐츠로 가공하여 지적 접근성(intellectual accessibility)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sup>10)</sup> 기록콘텐츠는 교육, 전시, 홍보 등 다양한 목적으로 개발될 수 있으나, 디지털화를 통해 기록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을 높이고, 다각적인 기록해설과 재조직을 통해 기록에 대한 지적 접근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기록콘텐츠의 이러한 편익에도 불구하고 콘텐츠화 과정은 기록학적 쟁점을 안고 있다. 콘텐츠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기록은 의도적인 선별과 해석과정을 거쳐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며, 콘텐츠 설계자의 의도가 기록이 표상하는 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로컬리티 기록화에서 어떠한 기록이 선별·보존되

6) 설문원, 김익한, “이승만시기 국무회의록과 정부부처 기록의 연관구조분석에 기반한 역사콘텐츠 설계방안,”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17권, 제2호(2006. 12), pp.115-136.  
7) 심성보,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콘텐츠 서비스의 구성 및 개발,” 기록학연구, 제16권(2007. 10), pp.201-256.  
8) 전수진, “보존기록관리기관의 온라인 콘텐츠 유형과 특징,”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8권, 제2호(2008. 12), pp.127-152.  
9) 로컬리티 기록화 개념은 설문원, “디지털 환경에서의 로컬리티 기록화 방법론 연구,” 상계서, pp.207-208 참조.  
10) 설문원, 김익한, 전계서, p.116.

있는지에 따라 남겨지는 기억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방식으로 해석되고 가공되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지에 따라 기록이 드러내는 역사의 의미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누가 어떤 관점에서 기록콘텐츠를 설계하느냐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 그러나 관점 자체가 배제된 콘텐츠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만드는 기록콘텐츠에서 민주주의의 이념이 배제될 수 없을 것이고, 환경운동단체의 기록콘텐츠에서 원자력발전에 비판적인 관점이 드러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따라서 기록콘텐츠에서 문제로 삼아야 하는 것은 의도나 관점 자체가 아니라 기록과 그 기록을 포함한 콘텐츠의 신뢰성이다. 기록콘텐츠에서 신뢰성은 기록의 사용방식과 해설정보의 편성 등 콘텐츠의 구조적 측면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또한 그 주제와 관련하여 신뢰할 만한 기록을 사용했는지, 얼마나 다양한 기록과 정보원을 사용했는지가 중요하다. 사례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에 특히 주목하고자 하였다.

## 2. 로컬리티 기록콘텐츠의 유형

현재 국내외에서 개발된 기록콘텐츠들은 목적 및 구조에 따라 유형을 나눌 수 있다. 기록콘텐츠는 목적에 따라 교육용, 전시용, 홍보용, 검색지원용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sup>11)</sup> 지역이나 장소 개념이 들어간 로컬리티 기록콘텐츠는 다음과 같이 보다 다양한 목적으로 개발될 수 있다.

- 교육 : 지역사 교육을 위한 콘텐츠
- 전시 : 지역 관련 기록 전시를 위한 콘텐츠
- 홍보 : 새로 발굴하여 공개되는 기록의 홍보를 위한 해설 콘텐츠
- 검색지원 : 주제별 해설과 함께 기록을 안내하는 가이드(research guide) 형식의 콘텐츠
- 복원/재현 : 지역의 건축물, 지역축제, 지역의 무형문화재 복원과 재현을 위한 콘텐츠
- 관광 : 지역의 기록자원을 문화자원, 지리정보 등과 결합·가공한 콘텐츠

이중 로컬리티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유형은 교육, 복원/재현, 관광을 위한 콘텐츠들이다.

기록콘텐츠가 가장 많이 활용될 수 있는 영역은 역시 교육이다. 역사 교육현장에서 ‘만들어진 역사’가 아니라 ‘원 사료 자체’를 가지고 교육하는 관행이 늘고 있고 학생들에게 “원 사료 자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사료를 스스로 평가하고 해석하는 능력, 사료를 토대로 서로 소통하고 토론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필요한데<sup>12)</sup> 이는 지역사 교육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기록콘텐츠는 특정 대상을 기록화하거나 재현하는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류한조, 김익한은 기록콘텐츠가 그간 “원 기록의 난해함을 극복하는 대안이나 정보전달의 도구” 정도로 사용

11) 전수진, 전계서, p.144.

12) 지수걸 등,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을 활용한 중등학생용 교육콘텐츠 개발 방안(대전: 국가기록원, 2007).

되어 왔지만, 기록의 증거성을 이용하면 단순한 정보전달이나 검색도구를 넘어 건축물이나 문화자원과 같은 특정대상을 재현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으며, 아울러 대상을 ‘기록화’하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sup>13)</sup> 기록콘텐츠는 지역의 건축물, 지역축제, 지역의 무형문화재 등을 복원하고 재현하기 위한 구조를 제공할 수 있으며, 아울러 어떤 대상에 관하여 어떤 기록을 수집하고 생산해야 할지에 대한 지침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은 연구에 머물러 있고 본격적으로 구축된 사례를 찾기는 어렵다.

지역의 기록과 문화자원을 연계하고 여기에 공간 및 지리정보를 부가하여 관광콘텐츠로 만든 사례로는 유교넷이 있다. 이는 한국국학진흥원이 구축한 사이트로서 경상북도 북부지역에 남아있는 옛 기록을 디지털화하고 이러한 기록을 유적지, 유물, 인물, 사이버 연표, GIS 데이터와 결합하여 유교문화에 관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고문서, 고서, 목판 등 유교문화와 관련된 기록 유산과 문중이 기탁한 자료들을 디지털화하여 서비스해 왔으며, 2007년도에는 이러한 기록자료 DB를 유교문화 체험 콘텐츠와 통합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인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유교문화의 전통이 잘 보존되어 있는 이 지역의 관광콘텐츠로 활용한다는 목적을 갖는다.<sup>14)</sup>

이밖에 기록의 전시와 홍보, 검색지원을 위해 기록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다. 학생은 물론 일반대중들에게 기록의 가치와 의미를 알리기 위해 개발하는 온라인 전시 콘텐츠, 지역에서 새롭게 발굴된 기록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기록을 둘러싼 역사적 맥락과 해석을 덧붙여 개발되는 콘텐츠<sup>15)</sup>, 주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록을 찾을 수 있도록 개발된 가이드(research guide) 형식의 콘텐츠<sup>16)</sup>가 있다.

전수진은 기록콘텐츠를 기록이 활용된 구조에 따라 ‘기록 중심형’과 ‘주제 중심형’으로 나누었다. 기록 중심형은 “하나 이상의 기록을 해석해 감으로써 그 주제에 대한 지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설계된 콘텐츠이며, 주제 중심형은 “배경에 대한 설명이 중심을 이루고, 기록은 그러한 설명을 보완하는 도구로 제시되는 구조”를 가진 콘텐츠를 의미한다.<sup>17)</sup>

로컬리티 기록콘텐츠의 경우 토픽, 장소, 건축물, 문화유물 등과 관련하여 콘텐츠 대상이 설정될 것이다. 가령, 어떤 장소의 기억을 남기기 위해 콘텐츠를 구축하는 경우 그 곳의 역사와 삶의 내력을 설명한 후, 관련 사진이나 기록을 보여주는 방식을 취한다면 주제 중심형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장소의 역사와 내력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분류체계를 만들고, 그 체계에 따라 의미 있는 사진기록

13) 류한조, 김익한, “기록콘텐츠 개발 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9권, 제1호(2009, 6), pp.221-248.

14) 유교넷 홈페이지 <<http://www.ugyo.net/>> [인용 2012, 2, 10].

15) 지역사 콘텐츠는 아니지만 새로 발굴한 기록이나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어 새롭게 공개되는 기록을 널리 알리기 위한 기록콘텐츠로는 국가기록원의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 현대사>가 있음.

16) 전형적인 가이드 형식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국가기록원의 국정과제별 콘텐츠도 검색지원용으로 볼 수 있음.

17) 전수진, 전계서, pp.146-147.

이나 문서를 제시하고 기술을 제공한다면 기록 중심형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지역콘텐츠 확충을 위하여 기록(특히 전통기록), 이야기 자원(스토리텔링), 공간정보 등을 결합한 콘텐츠를 개발하려는 시도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 역시 기록의 활용 관점에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콘텐츠의 형식에 따라 각 콘텐츠가 독립적으로 설계되어 활용되는 단일형과 여러 콘텐츠가 전체 기획에 따라 설계되어 체계적으로 배치되는 복합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18)</sup> 복합형은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단일형의 경우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한 시사성 있는 콘텐츠를 개발할 때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살펴볼 사례들을 특징별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지역콘텐츠 사례의 특징

사례 범위	Valley 아카이브	Calisphere	향토문화 전자대전	국가기록원 내고향 역사찾기
구조	기록중심형	기록중심형 (주제중심형 포함)	주제중심형	기록중심형
형식	단일형	복합형	복합형	단일형
핵심독자*	학생 및 연구자	학생, 교사	일반인, 연구자 등	(연구자)
주제	남북전쟁 기간의 생활사	미국 서부 지역사	각 지역의 역사	조선총독부의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역의 변화
시기	(미국) 남북전쟁기	전 시기	전 시기	일제강점기
대상지역	2개 마을 (오거스타 카운티, 프랭클린 카운티)	캘리포니아 전역	29개 지역 (전국으로 확대 예정)	서울, 경기, 경상 지역 (확대예정)

\* 콘텐츠 소개에 나타난 내용에서 핵심 독자군 유추(내고향 역사찾기는 명시된 독자층 없음)

## II. 로컬리티 기록콘텐츠 사례 분석

### 1. 남북전쟁기 두 마을 이야기 - Valley 아카이브<sup>19)</sup>

‘The Valley of the Shadow’(이하 Valley 아카이브)는 미국 남북전쟁 전후 두 마을 및 주민들의 삶을 기록으로 대비하여 보여주는 아카이브이다. 특정 시기의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기록을 수집하고 이를 재구성하여 보여주는 매우 완성도 높은 기록콘텐츠로 볼 수 있다. 버지니아 주의 오거스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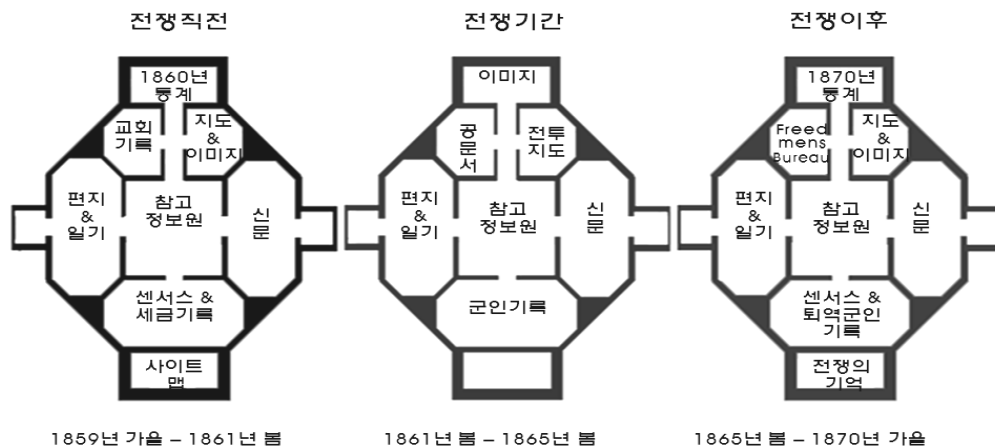
18) 전계서, pp.146-147.

19) <<http://valley.lib.virginia.edu/>>를 참조하여 작성 [cited 2012. 1].

카운티와 펜실베니아주의 프랭클린 카운티<sup>20</sup>)는 계곡을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으면서 남북전쟁 당시 북군과 남군으로 갈려 있던 마을로서, 두 마을 주민들이 남긴 수천 건의 편지, 일기, 신문, 연설, 센서스 통계, 행정기록, 교회기록을 통해 전쟁시기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Valley 아카이브는 버지니아 대학교의 버지니아 역사 정보센터가 개발한 디지털 아카이브이지만, 원래는 1991년 Edward L. Ayers가 단행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Ayers는 남북전쟁 기간 중 마을 사람들의 작은 일상들을 개인의 편지, 일기, 메모, 센서스 기록, 교회기록, 정부기록, 전쟁 보고서 연설, 신문 등을 이용하여 엮어보려는 계획을 세웠다. 다종다양한 일상사를 모은다면 남북전쟁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삶의 패턴들을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후 이 프로젝트는 버지니아 대학의 인문학 고등기술연구소(Advanced Technology in the Humanities, IATH)의 재정지원과 IBM의 전산기기 지원을 받아 디지털 아카이브로 발전하게 되며, 기술적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 웹 버전으로 서비스하고 있다.<sup>21)</sup>

이 아카이브에서는 남북전쟁 직전(1859년 가을-1861년 봄), 전쟁기(1861년 봄-1865년 봄), 전쟁 후(1865년 봄-1870년 가을)로 시기를 나누어 기록들을 전시관 안내도와 같은 메뉴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그림 1 참조). 각 시기별로 제공하는 기록 메뉴는 <표 2>와 같다.



<그림 1> Valley 아카이브의 구조<sup>22)</sup>

20) 두 마을은 새넌도어 계곡을 끼고 200마일 가량 떨어진 지역으로, 비슷한 지형적 환경과 농경 구조를 지니고 있다. 새넌도어 계곡 지역은 기름진 농지가 풍부하다는 전략상의이유로 남북전쟁 동안 북부군과 남부군 양쪽으로부터 집중 공격 대상이 된 곳(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21) <<http://valley.lib.virginia.edu/VoS/usingvalley/valleystory.html>>[cited 2012. 5. 11].

22) <<http://vshadow.vcdh.virginia.edu/choosepart.html>>[cited 2012. 5. 11].



〈표 2〉 Valley 아카이브에 포함된 기록 유형

유형	내용
통계	[전쟁직전] 1860년 통계, [전쟁이후] 1870년 통계, 1860년과 1870년 오거스타 카운티와 프랭클린 카운티의 각종 통계를 비교한 자료
편지/일기	[각 기간별] 편지와 일기 등 개인기록
신문	[각 기간별] 지역 신문 기사
센서스 등	[전쟁직전] 센서스 자료, 세금 기록 [전쟁이후] 1860년과 1890년 센서스 자료, 1890년 퇴역 군인 통계 기록 검색 및 열람
공공기록	[전쟁직전] 교회 기록 : 두 마을의 교회에서 생산한 기록. 인명과 교회 명으로 검색 가능 [전쟁기간] 공문서 : 지역 별 공문서를 연도별/생산자별로 목록의 브라우징 및 검색 가능 [전쟁기간] 군인 기록 : 전쟁에 참가한 군인 검색, 미국 국립기록청 등에서 수집한 군대기록 목록 [전쟁이후] Freedman's Bureau 기록(1865년-1868년에 토지 및 노예문제 등 전후 문제 수습을 위해 존속했던 기관의 기록)
지도	[전쟁직전] 두 마을의 지형도 및 각종 주제도, 두 마을의 지도 비교 [전쟁기간] △전투지도 : 전투 당시 부대별 전투 진행 상황 등을 움직이는 지도 화면을 이용하여 보여 줌. △전투와 관련된 사건의 기록 검색(전투명, 연대, 대대, 교전시기, 지휘자명 등으로 검색 가능)
이미지	[전쟁직전][전쟁이후] 사진, 예술작품 등. [전쟁기간] 전쟁 관련 사진
참고 정보원	[각기간별] 마을별, 주별, 국가로 나누어 주요 사건을 날짜별로 정리한 표 제공. 사건과 신문기사 DB로 링크 정보원(논문, 단행본, 매뉴스크립트 컬렉션 등) 목록 제공
서사 (전쟁의 기억)	[전쟁이후] 마을별로 전쟁의 기억과 관련된 신문기사, 수필 등의 문학작품, 사진 등

가령, 전쟁 직전 시기 중 편지와 일기를 선택하면, i) 오거스타 주민의 편지와 일기, ii) 프랭클린 주민의 편지와 일기, iii) 편지와 일기 검색, iv) 편지와 일기에 대한 간략 해설 등의 하위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오거스타 및 프랭클린 카운티에서 생산된 편지와 일기 기록들이 인명 및 가문명의 알파벳순으로 나열되어 있고, 인명 및 가문명을 클릭하면 간략한 소개와 관련 기록들을 볼 수 있는 페이지로 연결된다. 오거스타 카운티의 Evans-Sibert Family의 기록을 선택하면 〈표 3〉와 같은 정보를 볼 수 있다.

〈표 3〉 개인 기록의 제공 구조 : 오거스타 카운티 Evans-Sibert 가문 사례

항 목	제시된 내용
가문 개요	Sibert 가문은 오거스타 카운티의 Mount Solon에 살았으며, 제철업(iron business)에 종사했다. Mollie로 불렸던 Mary Anna Sibert는 David H. Evans와 1870년에 혼인하였고 이후 오거스타 카운티에 살았다.
통계 링크	Evans-Sibert 가족에 대한 통계(Valley of Shadow의 센서스 통계 DB) 안내 - 1860 인구통계, 1870 인구통계로 각각 링크
편지	- 전쟁직전: <Letters of Evans-Sibert Family, 1856-1861> 개요, 편지 컬렉션으로 링크 - 전쟁시기: <Letters of Evans-Sibert Family, 1861-1865> 개요, 편지 컬렉션으로 링크 - 전쟁이후: <Letters of Evans-Sibert Family, 1865-1870> 개요, 편지 컬렉션으로 링크

편지 및 일기 기록들을 위한 검색창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편지는 단어 및 구문, 작성자, 키워드, 연도 등으로 검색할 수 있고, 편지의 범주별(모든 편지, 오거스타 카운티, 프랭클린 카운티, Freedmen's Bureau(노예해방 부서))로 조건 검색이 가능하다. 일기는 단어 및 구문, 연도 검색 등이 가능하며, 지역별(오거스타, 프랭클린), 주제별(아프리카계 미국인, 농업, 예술과 여가, 전투 기록 등)로 필터링 검색도 할 수 있다.

신문의 경우, 날짜별 브라우징을 할 수 있으며, 지역별로 지역신문을 선택하여 볼 수도 있다. 원문은 텍스트 파일이나 PDF 파일로 제공된다. 신문명을 클릭하면 Valley 아카이브가 보유한 해당 신문 전체를 날짜별로 열람할 수 있다. 토픽별 기사검색도 가능한데, 아프리카계 미국인/인종 관련, 예술/엔터테인먼트/여가, 경영 및 산업, 교회 및 종교 활동, 시민 단체 및 친목 조직, 일상생활, 정부, 이주, 군대 및 전쟁, 정치, 무역 및 상업, 여성 활동 등의 주제에 대한 오거스타와 프랭클린 지역의 기사를 제공하며, 각 대주제 아래 소주제로 구분되어 있다. 검색은 키워드를 입력하거나 날짜 범위, 신문 등의 조건을 선택하거나 검색할 수 있다. 각 신문에 대한 개괄적 정보(창간 역사, 창간인, 페이지 소개 등)도 제공한다.

또한 전쟁직전의 센서스 통계 및 세금 기록을 보면, i)1860~1870년 동안 정부에서 각 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계 정보 ii)센서스 통계: 인구, 농경, 제조업, 노예 소유 및 전체 통계에 대한 기본 검색 및 상세 검색을 할 있고, 전체 통계 자료에서 1820년부터 1860년까지 매 10년마다 조사한 센서스 자료를 볼 수 있으며, 연도별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도 볼 수 있다. iii)세금 기록에서는 세금 납부 및 재산 소유 관련 기록을 볼 수 있으며, 노예 해방 등록부(Free Black Registry)에서는 주인이 자유를 주었거나 노예 해방 제도를 통해 자유가 된 흑인들에 대한 기록을 볼 수 있다. 전쟁직전 지도 메뉴에서는 오거스타 카운티 및 프랭클린 카운티의 지형, 기반시설, 농경, 노예제도, 정치, 종교 등과 관련된 지도 및 분포도와 각 분야별로 양 지역을 비교한 지도와 분포도를 제공한다.

이미지 메뉴에서는 두 지역과 관련된 이미지 자료를 제공하는데, 가령 전쟁직전의 이미지 자료에는 독일 예술가 Edward Beyer가 버지니아 지방 여행 중 오거스타 카운티를 포함한 여러 지방을 그린 작품들, 1850년대에 David Strother라는 미술가가 새년도어 계곡을 여행하며 그린 작품들, 우드로 윌슨의 출생지 및 기념관에서 1995년 봄 동안 전시했던 퀼트 작품들, 19세기 주민들의 초상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참고 정보원에서는 오거스타 카운티와 프랭클린 카운티, 버지니아 주와 펜실베이니아 주, 국가의 주요 사건을 연표로 구성하여 제공하고 있고, 사건을 신문 DB와 링크하여 관련 기사를 안내해주기도 한다. 여기서는 그밖에 참고할 만한 정보원(논문, 단행본, 매뉴스크립트 컬렉션 등) 목록도 제공하고 있다. 서사자료도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전쟁의 기억에서는 마을별로 전쟁의 기억과 관련된 신문기사, 수필 등의 문학작품, 사진 등을 제공하고 있고, 통합 검색도 제공한다.

Valley 아카이브가 제공하는 기록콘텐츠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두 마을 주민들의 삶의 패턴을 비교한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개발되었지만, 주제해설을 통해 비교하기보다는 각 기록을 통해 차이를 “스스로 드러내도록” 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사회·역사적 맥락에 대해서도 설명은 최소화하는 대신 적절한 기록을 제시함으로써 이용자 스스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개인의 일상사에 초점을 맞추어 개인기록의 비중이 크지만, 개인이 살았던 문화적, 종교적 배경과 전쟁이라는 시대적 특성을 공문서, 군대기록, 신문기사, 통계, 교회기록, 예술작품 등 다양한 유형의 자료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각 기록의 출처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기록에 대한 신뢰성도 높이고 있다.

셋째, 크게는 시기별 구성을 취하고 있지만 각 시기 안에서 기록 유형별 메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록중심 콘텐츠로 볼 수 있다. 특히 개별 건 목록을 제공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해당 기록의 특징과 의미가 포함된 기술을 제공하고 있고, 기록이 전체 기록 DB와 연계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록콘텐츠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넷째, 기록 간 연계와 비교가 용이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마을을 비교할 수 있도록 기록을 체계적으로 배치하고 있고, 각 기록과 자료 간의 연관 관계를 세밀하게 설정하여 적절한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다섯째, 개인의 일기와 사진, 움직이는 전투지도 등 대중적 흥미를 끌만한 자료를 제공하는 콘텐츠이지만 연구자들이나 교수, 학생들이 기록을 이용하여 스스로 연구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카이브로서의 성격도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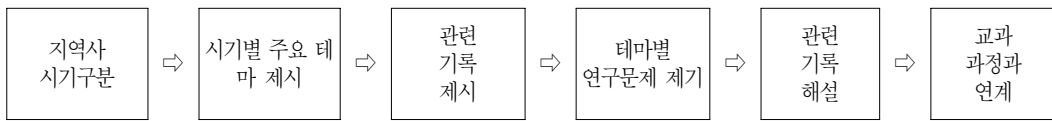
## 2. 캘리포니아 지역사 콘텐츠

캘리포니아 대학은 지역사와 관련된 기록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거나 연계하여 웹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 기관 중 하나이다. 기록콘텐츠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사례는 Calisphere 사이트<sup>23)</sup>이다. 이 사이트는 캘리포니아의 역사 및 문화와 관련된 사진, 문서, 신문, 정치 풍자만화, 예술작품, 일기, 전사된 구술, 광고물, 문화 박물관 등 20만 건 이상의 디지털화 기록에 대한 게이트웨이의 역할을 수행하며 기록을 이용한 많은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Calisphere는 캘리포니아 대학 캠퍼스의 도서관과 박물관 등 캘리포니아 전역 110여 개의 다양한 수집기관들로부터 디지털화된 일차자료를 제공받아 콘텐츠로 가공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며, K-12 수업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캘리포니아 내용 표준에 맞추어 제공하고 있다. 특히 역사 및 사회과학, 문학, 시각예술 관련 과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일차자료 컬렉션을 서비스하고 있는데 이중 대표적인 기록콘텐츠는 테마별 컬렉션(Themed Collections)이다. 이 컬렉션에서는 시기별로

23) <<http://www.calisphere.universityofcalifornia.edu/institutions.html>> [cited 2012. 5. 10]. 설문원,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제32호(2012. 4), pp.3-44에서 일부 재인용.

주요 테마를 잡아 설명하고 관련된 일차정보원을 제시하며 이를 중고등학교 학습과 연계한다. 예를 들어 1950~70년대의 주제는 사회개혁(Social Reform), 민권운동(The Civil Rights Movement), 자유언론운동(The Free Speech Movement), Watts(미국 남부 흑인지구, 1965년 흑인폭동이 일어난 곳), 사회정의를 위한 투쟁, 일상생활, 성적 소수자 가두행진 등이다. 테마별 컬렉션의 구조는 <그림 5>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테마별 컬렉션은 기록 중심 콘텐츠라고 볼 수 있으며, 여러 개의 콘텐츠들이 큰 틀 속에서 연계되고 배치된다는 점에서 복합형 콘텐츠라고 볼 수 있다.



<그림 2> Calisphere의 테마별 컬렉션 구조

교사들을 위해 이러한 일차자료는 물론 교수 및 학습에 관련 정보 제공 및 웹사이트 링크, 학습 계획 샘플, 일차 자료 분석 시트도 제공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교육내용 표준에서 선별된 용어들을 색인화하여 각 용어별로 일차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Calisphere에서 제공하는 일부 콘텐츠는 주제중심 구조를 취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문화> 콘텐츠에서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시아계 미국인, 히스패닉계 미국인, 토박이 미국인의 4개 그룹에 대한 기록을, <일본계 미국인의 이주에 관한 디지털 아카이브>에서는 2차세계대전중 일본계 미국인 수용의 역사를 보여주는 개인문서 및 공문서, 구술 채록, 예술작품 등의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양자 모두 세부주제별로 주제해설을 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나열하는 단순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대학은 지역차원의 구술사 아카이브 구축에도 주력하고 있는데, ROHO 사이트<sup>24)</sup>를 예로 들 수 있다. '지역구술사사무실(The Regional Oral History Office, 이하 ROHO)'은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의 연구프로그램으로 밴크로프트 도서관(Bancroft Library)이 운영한다.<sup>25)</sup> ROHO에서는 1954년 이후 캘리포니아와 미국 서부의 역사상 중요한 주제 분야에 관한 구술 및 영상(video history) 기록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록은 단행본, 논문, 비디오와 기록영화, 학위논문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구술사 및 녹취자료를 검색할 수 있으며, 일부 구술기록은 온라인으로 제공된다. ROHO의 특징은 학생들이 구술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수업과 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ROHO는 이러한 구술기록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24) <<http://bancroft.berkeley.edu/ROHO/index.html>>[cited 2011. 8. 30].

25) 밴크로프트 도서관의 구술사 작업은 미국 서부 역사가인 밴크로프트(Hubert Howe Bancroft)로 거슬러 올라간다. Bancroft는 북아메리카 서부에 관한 방대한 도서, 저널, 지도, 매뉴스크립트 컬렉션에 캘리포니아와 서부 개발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의 살아있는 기억이 빠져있음을 문제로 생각하였다. 1860년대에 그는 다양한 서부 개척자 집단과 면담을 하여 자서전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구술자료집이 역사가들을 위한 일차자료로 계속 제공되도록 하는 야심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http://bancroft.berkeley.edu/ROHO/index.html>>

교육콘텐츠를 만들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다. 교육콘텐츠는 각 구술기록을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지침 등이 담겨 있다. 이러한 구술사 아카이브는 만들어진 기록을 수집하여 제공하는 Calisphere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지역 기록을 ‘생산’하고 생산된 기록을 토대로 다시 콘텐츠를 구축하여 제공한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캘리포니아 지역사 콘텐츠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사에 대한 방대한 기록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캘리포니아 대학은 물론 도서관, 박물관, 역사협회 등 다양한 기관들이 협력하여 기록을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기록을 선별하여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콘텐츠에 텍스트 기록뿐 아니라 다양한 시각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고, 콘텐츠에 제공된 기록뿐 아니라 확장하여 기록을 검색할 수 있다. 둘째는 이용자층과 그 목적이 명확하다는 점이다.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교실에서 각 학년별로 기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 3. 향토문화전자대전<sup>26)</sup>

향토문화전자대전 사업은 중앙의 시각이 아니라 지방 중심의 시각에서 지역문화 자료를 발굴, 분석, 디지털화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서는 기존 시지(市誌), 구지(區誌), 향토지(鄉土誌)의 평면적인 기술 방법을 지양하고 역사, 민속 등 지역의 전통문화 자원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의 현재적 자원에 대한 정보까지 제공하며,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지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역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sup>27)</sup>

이 사업을 통해 구축된 사이트들은 모두 <디지털OO문화대전>이라는 이름으로 통일되어 있고, 메뉴 구성도 거의 동일하다. 현재 사업이 완료되어 서비스 되고 있는 곳은 총 29개 지역이며, 부산을 비롯한 3개 지역은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이다(<표 4> 참조).

<표 4> 「향토문화전자대전」 사업 종료 현황(총 29 곳) : 2012. 5 현재<sup>28)</sup>

서울시	구로구	경상북도	구미시, 안동시, 울릉군, 울진군, 칠곡군, 김천, 고령
경기도	부천시, 성남시*, 안산시, 용인시, 광명시	경상남도	양산시, 진주시, 창원시
강원도	강릉시	전라북도	김제시, 남원시, 고창군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음성군, 진천군	전라남도	여수시, 진도군
충청남도	공주시, 논산군	제주도**	제주시

\* 성남시는 국문사이트와 영문사이트 모두 운영

\*\* 제주시와 북제주군이 편찬되었으나 북제주군이 제주시에 편입되면서 전자대전이 하나로 통합됨.

26) <<http://www.grandculture.net/about/detail.asp>> 참조. [2011. 12. 20 접근].

27) 양홍숙, “부산 로컬리티 탐구: 『디지털부산역사문화대전』을 중심으로,” 제1회 SKK 로컬리티의 기록화 컬로퀴엄 자료집(2010. 11. 19), pp.21-37.

편찬 및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준비 작업은 사전조사 → 지역문화 관련 자료의 수집 → 지역문화 지식자원 아카이브 구축 → 항목 선정 지침, 항목 구성 체계도 작성 → 항목 개발, 집필자 선정 → 콘텐츠 개발 순으로 진행된다.<sup>29)</sup>

이러한 준비 작업을 거쳐 각 지역별 사이트가 구축되는데, 사이트의 주요 메뉴는 콘텐츠 목차, 디렉토리 분류, 콘텐츠 색인, 전자 지도, 전자 연표, 시청각자료로 구성된다. 콘텐츠 목차는 지역백과사전의 본문에 해당된다. 자연·지리(삶의 터전), 역사(삶의 내력), 문화유산(삶의 자취), 성씨·인물(삶의 주체), 정치·경제·사회(삶의 틀), 종교(삶의 내용1), 문화·교육(삶의 내용2), 생활·민속(삶의 방식), 구비 전승·어문학(삶의 이야기) 등의 대분류와 중소분류로 목차를 나누어 항목별 콘텐츠를 제공한다. 디렉토리 분류는 다양한 분류체계에 따라 콘텐츠를 브라우징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메뉴로서, △표제어 분류(콘텐츠명의 한글과 영문 자모순), △분야분류(삶의 터전, 삶의 내력 등 9개 대분야 및 중소 분야별), △유형분류(개념용어, 기관·단체 등 19개 유형별), △시대분류(시기 대분류와 중분류별), △지역분류(지역의 법정동), △집필자분류, △참고문헌분류(콘텐츠를 작성하기 위해 참고한 문헌을 중심으로 콘텐츠 확인) 등으로 구성된다. 콘텐츠 색인에서는 콘텐츠의 내용에 포함된 인명, 지명/기관명, 서명/작품명으로 콘텐츠를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마을이야기>로 지도를 통해 지역 내 건물이나 명소에 관한 이야기를 읽거나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별한 이야기>를 통해 기획영상과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콘텐츠마다 댓글을 가능하게 하거나 <내가 쓰는 00백과>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고, 전자 지도와 연표로 지역의 공간과 역사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도 마련되어 있다. 항목설명에 기록이 보조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시청각자료는 각 지역의 사진, 음향, 동영상 등의 기록을 수집·생산하여 제공하는 메뉴이다.

항목 해설과 관련 있는 항목을 연계해주고, 아울러 지도, 사진 등 관련 이미지를 썸네일로 보여주며, 이미지별 상세목록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청각자료는 <시청각자료> 메뉴에서 동영상, 음향, 사진, 도면, 도표, 가상현실로 나뉜 카테고리에 따라 그 원문을 열람할 수도 있다. 시청각자료의 하위 분류체계는 <표 5>와 같다. 강릉의 경우 이밖에 30편의 마을설화, 인물설화, 불교설화에 관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시청각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28) <<http://www.grandculture.net/main/main.asp>> [2012. 5. 1 접근].

29) 양홍숙, 상계서, p.26 참조. 디지털부산역사문화대전을 편찬하고 있는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의 경우임.

〈표 5〉 시청각자료의 분류<sup>30)</sup>

구분	분류1	분류2
동영상	자연과 지리	기후
		자연지형
		동물과 식물
		도시와 마을
	지역사회와 시설	경제와 산업
		공공기관과 단체
		지역시설
		교육기관
	역사와 문화유산	사건과 제도
		지정문화재
		유물
		유적
	문화예술과 신앙	종교와 신앙
		행사와 축제
		문학/문헌 및 작품
	생활과 민속	생활사
	의식주	
음향	동영상의 하위 분류와 같음	
사진	동영상의 하위 분류와 같음	
도면	지도	고지도
		행정지도/안내도
		지형도/생태분포도
	유물/유적과 도구	평면도 및 단면도
		세부도 및 실측도
		분포도 및 위치도
도표	자연과 지리	
	지역사회와 시설	
	역사와 문화유산	
	문화예술과 신앙	
	생활과 민속	
가상현실	동영상의 하위분류와 같음	

향토문화전자대전 사업의 주요 내용에는 아카이브 구축이 중요한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구축된 사이트에서는 아카이브의 체계적 축적과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찾기 어려웠다. 이는 기록의 특성을 반영한 아카이브 서비스 기능이 부재하다는 전자대전의 구조적 문제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자대전에서 1차 자료에 해당하는 기록을 제공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기록을 수집하여 제공하는 경우로, 고지도나 기존 사진 등을 디지털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둘째, 기록을 새롭게 생산하는 경우로서 항목과 관련 있는 행사나 노래를 녹음하고 녹취한 기록, 새로 촬영한 사진

30) 칠곡군의 시청각자료 분류현황(<http://chilgok.grandculture.net/Contents/Index?dataType=0407>) 등 참조.

등이 해당된다. 셋째, 기록을 활용한 동영상 등의 콘텐츠를 통해 기록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이렇게 사진, 동영상의 경우 기술 요소는 설명문, 소재지, 제작일자, 저작권, 제작(자)이며, 음향 기록의 경우 채록, 제공자 등이 추가되는데 요소 설계 자체에도 문제가 있고, 기술의 일관성도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가령, 디지털여수문화대전을 보면, '호남이 없었다면 나라도 없었다'라는 항목에서 관련 시청각자료로 '고돌산진 고지도'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 고지도에 대한 정보는 <표 6>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즉, 고지도 자체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고 고돌산진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룬다. 출처도 아무런 서지사항 없이 '전남의 옛지도'로만 표기하고 있고, 제작일자는 2008년 12월 4일로 되어 있다. 고지도의 생산일자가 아니라 디지털화한 일시로 추정되는데, 이용자에게 어떤 날짜가 중요한지는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표 6> 이미지 기록 설명 : 고돌산진 고지도<sup>31)</sup>

- 설명문: 조선 전기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에 있던 수군기지인 고돌산진의 고지도이다. 임진왜란 당시 전라좌수영 관하 오관, 오폭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전라좌수영이 설치되기 전부터 있었던 수군기지이다. 태종실록지리지에 따르면 조선 초에 설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실록지리지에 돌산포에는 병선 8척, 선군 518명, 초공 4명이 있었다고 적혀 있는데, 이 기록에 따라 돌산도 방답진으로 옮겨가기 전 고돌산진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했음을 알 수 있다.
- 소재지: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
- 출처: 전남의 옛지도
- 제작일자 : 2008-12-4

음향기록의 경우, 성남디지털문화대전에서와 같이 도로 분쟁과 관련된 주민들의 인터뷰, 노인들의 장기자랑 등 생활사와 관련된 기록들도 제공되고 있었지만, 대체로 음악 관련 기록이 대부분이었다. 주로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으로 구분하여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전통음악은 노동 등을 할 때 부르던 타령과 같은 전통소리들이 많고 현대음악은 교가가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를 차지하였다. 음향 파일과 함께 제공되고 있는 기술 사례는 <표 7>, <표 8>, <표 9>와 같다.

<표 7> 음향기록 설명 사례 : 진도군 권주가<sup>32)</sup>

- 설명문 : 주로 술자리에서 서로 술을 권할 때 부르는 노래. 명인 한남례 시연
- 채 록 : 잡수시오 잡수시오 이 술 한잔을 잡수시오 ... (중략)
- 제작일자 : 2006.12.12
- 제작자 : (주) 에듀시티

31) <<http://yeosu.grandculture.net/Contents/Index?dataType=0406>> [인용 2011. 12. 10].

32) <<http://jindo.grandculture.net/Contents/Index?dataType=04>> [인용 2011. 12].



〈표 8〉 음향기록 설명 : 반성초등학교 교가<sup>33)</sup>

- 설명문 : 반성초등학교의 교가이다.
- 채 록 : 1. 정병산 정기를 이어받아서 내고장 꿈나무 자라나는 곳 ... (중략)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반림동 7
- 제작일자 : 2009.6.29
- 제 공 : 반성초등학교
- 저작권 : 반성초등학교
- 출 처 : 반성초등학교

〈표 9〉 음향기록 설명 : 충주 탄금초등학교 교가<sup>34)</sup>

- 설명문 : 충주시칠금동 소재 탄금초등학교 교가
- 채 록 : 역사의 향기 서린 탄금 옛터에 중심에 우뚝한 배움의 전당 진리를 배우고 ... (중략)
- 소재지 :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824번지
- 제 작 : (주)비추얼스톱
- 제작일자 : 2008.12.12
- 제공일자 : 2008.12.07
- 제 공 : 탄금초등학교
- 저작권 : 한국학중앙연구원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남겨야 할 기록으로서 ‘음향기록’이라면 상세한 맥락 및 내용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기술의 일관성을 갖추는 데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권주’나 ‘교가’가 왜 선정되었는지, 어떤 의미와 중요성을 갖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즉, 기록의 의미와 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맥락정보가 거의 제공되지 않아 기록콘텐츠로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기록을 이용한 콘텐츠 개발 사례로는 디지털구로문화대전의 ‘구로, 노동야학에서 다문화교육으로, 구로 교육 약사’를 들 수 있다.<sup>35)</sup> 노동야학총서 등 서적과 교육 현장, 건물 등에 관한 사진, 포스터 등을 이용해 근대부터 이어진 야학 교육의 역사를 보여주고 가리봉동 일대, 이주민의 노동현장과 비제도적 측면의 다문화교육 등의 사진과 동영상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기존의 기록을 이용하여 새로운 가공콘텐츠를 만들어 제공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동영상 콘텐츠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서는 좀 더 상세한 기술요소가 필요할 것이다. 동영상의 기술요소는 설명문, 소재지, 제작일자, 제작, 저작권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설명문만 있는 콘텐츠들도 많았다.

향토문화전자대전의 특징을 기록콘텐츠의 관점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공되는 기록의 경우, 대체로 항목 집필의 부산물로 생산된 경우가 많으며 집필된 항목을 보완하거나 예시하는 정도로 설계되어 균형 있는 기록화를 성취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특히

33) <<http://changwon.grandculture.net/Contents/Index?dataType=04>> [인용 2012. 1. 20].

34) <<http://chungju.grandculture.net/Contents/Index?dataType=0404>> [인용 2012. 1. 20].

35) <<http://guro.grandculture.net/Contents/Index?dataType=04>> [인용 2011. 12. 20].

기록에 대한 해설이 취약한 편이다. 즉, 지역문화백과사전의 역할에는 충실하지만 기록콘텐츠 혹은 아카이브로서는 미흡한 점이 많다.

둘째, 시청각 기록 중심으로 수집되어 제공되고 있다. 일반 문서가 사진기록에 포함된 경우도 있었지만 극히 일부였다. 시청각기록 유형별 검색 맞추기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기록도 눈에 많이 보였는데, 가령 음향기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가가 그 예이다. 기록의 형식적 수집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대표할 만한 기록을 선별하여 수집, 생산하는 절차가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항목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용도로 기록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제 중심 콘텐츠로 볼 수 있다. <시청각자료> 메뉴의 경우, 시청각자료를 유형별, 범주별 분류체계에 따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기록중심 콘텐츠로도 볼 수 있지만, 자료에 대한 해석이나 해설이 거의 없고 재구조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자료 데이터베이스 정도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 4. 국가기록원의 지역콘텐츠

국가기록원이 제공하는 지역콘텐츠로는 <내고향 역사 알기>와 <내고장 역사 찾기>가 있다. <내고향 역사 알기>는 일제강점기 지방행정구역 변천과 관련된 기록을 중심으로 개발된 콘텐츠이다. 일제가 한국을 병합한 이후 지방의 효율적 통제를 위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여러 차례 실시하였으며, 개편 내용은 각 지방의 행정구역 변천사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하다. 따라서 국가기록원은 “조선총독부가 1911년에서 1925년에 걸쳐 생산한 문서철 중에서 부·군·면 폐합과 관련된 문서철만을 추출하여 그들이 작성한 지도와 문서를 번역하고 재편집하여 각 지역의 역사와 경계 구역의 변천사를 일목요연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콘텐츠로 재구성”하였다.<sup>36)</sup>

전체 메뉴는 <내고향 옛지도·기록보기>, <고향 기록 훑아보기>, <시대별 기록찾기>로 구성된다. <내고향 옛지도·기록보기>에서는 시기별(대한제국기, 일제강점기, 현재)로 해당 지역별 지도와 문서의 원본 이미지를 볼 수 있다. 현재 북한지역을 포함하여 전 지역에 대한 지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향 기록 훑아보기>에서는 1911년부터 1925년까지 생산된 관련 문서철을 부제안(府制案) 및 면제 관련 문서철, 부군 폐합 관련 문서철, 면제 폐합 관련 문서철, 행정구역 및 명칭변경 관련 문서철로 범주를 나누고 각 범주에 속한 문서철별로 상세 해설과 관련 기록리스트를 제공하고 있다. 원문 이미지 및 번역문은 서울, 경기, 경상 지역에 대해서만 우선 구축하여 서비스 중이며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시대별 기록찾기>에서는 연도별로 기록물철 및 기록문건명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다.

이 콘텐츠는 규모가 방대하거나 정교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역별로 특정 시기의 특정 활동과 관련된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해제하여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6) <<http://theme.archives.go.kr/next/oldhome/history/history.do>> [인용 2012. 5. 10].

그러나 <내고향 역사알기>라는 매우 대중적인 이름과 “자신이 태어나고 사는 고장의 행정체계가 어떻게 변모했는지 일목요연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sup>37)</sup> 한다는 목적을 밝히고 있지만 이러한 취지를 달성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지역별로 당시 행정지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기록철별 해제가 중심을 이루어 기존의 해제집과 큰 차이가 없으며, 전체적으로 이 콘텐츠는 일반인보다는 관련 분야 연구자들에게 활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제강점기 각 지역별 행정구역의 변천사를 보여주는 의도라면, 당시의 관보, 통계자료, 신문기사 등 다양한 정보원을 함께 활용하여 입체적으로 역사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내고장 역사 찾기>는 지방에 산재한 기록유산을 찾기 위한 사업을 통해 수집한 기록을 토대로 구축한 콘텐츠이다.<sup>38)</sup> 민간기록물 중 가치 있는 기록물을 발굴하여 온 국민이 기록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과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조사자가 함께 협력한 이 사업에는 향토연구가, 퇴직공무원, 퇴직교사 및 고학력실업자 등이 참여하였다. 2009년 6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추진한 사업에는 서울 송파구, 부산 수영구, 대전 동구, 제주, 경북 상주 등 총 54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였다. 현재 온라인으로 구축된 콘텐츠는 지역 지도별 자료목록을 제공하는 데에 그치고 있어 본격적인 기록콘텐츠라고 보기는 어렵다.

국가기록원은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기록콘텐츠를 <나라기록 포털>을 통해서 서비스하고 있다. 나라기록 포털에서는 주제 중심의 콘텐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복합형 콘텐츠인 국정분야별 콘텐츠(주제 수가 6천 개에 달함)는 물론 단일형 콘텐츠로 볼 수 있는 수십 개의 토픽 콘텐츠도 주제 중심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국가기록원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현대사 기록을 토대로 많은 기록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겠으나 콘텐츠 주제 선정시 국가기록원의 위상에 걸맞게 다양한 이용자층을 고려하는 객관적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sup>39)</sup>

또한 이러한 콘텐츠들은 모두 주제중심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편향성이 표출될 위험이 크다. 특히 사회적으로 상반된 관점이 존재하는 주제를 다루게 될 경우, 주제 중심의 구조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크다. 예를 들어, <새마을운동> 콘텐츠의 경우, 맥락해설, 관련 기록, 관련 기록 해설로 구성된다. 이중 기록을 영역별로 모아놓은 ‘갤러리’에서는 새마을운동의 긍정적인 효과와 관련된 기록만을 제시하고 있다.<sup>40)</sup> 새마을운동에 대해 학계 및 정권에 따라 다양한 평가가 존재함을 고려할 때

37) 국가기록원, 발간도서·온라인 콘텐츠 가이드북(대전: 국가기록원, 2011. 12), p.96.

38) <<http://www.archives.go.kr/next/myhome/introduction/history.do>> [인용 2012. 5. 10].

39) 국가기록원이 특정 토픽을 정하여 기록콘텐츠를 본격적으로 서비스하기 시작한 것은 2007년 이후이며 5·18 민주화운동, 4·19혁명,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김창룡저격사건, 진보당사건, 3·15 부정선거, 필화사건), 남북회담, 대통령선거의 역사 등의 토픽콘텐츠가 개발됨. 2008년 정권교체 이후 개발된 토픽콘텐츠들은 새마을운동, 경부고속도로 건설, 식량증산, 원자력 진흥정책, 인구정책, 산림녹화, 산업단지 개발 등 산업화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키는 주제가 대부분.

40) 소재목을 “새마을 운동으로 농어촌과 도시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해갔다”라고 설정한 후 1971년 육영수 여사의 새마을 슈퍼마켓 개관식 시찰 사진 등 제시<<http://theme.archives.go.kr/next/semaul/gallery.do>> [인용 2012. 5. 10]. 국가기록원 소장기록의 한계로 볼 수도 있지만 이 콘텐츠는 국가기록원 외의 기관이 소장한 기록도 포함하고 있음.

기록을 균형 있게 선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국가기록원 기록콘텐츠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주제해설과 기록을 연계하는 정보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새마을운동 콘텐츠>에서 주제해설과 관련하여 보여주고 있는 기록이 왜 선택 되었으며 의미는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그 기록이 속한 기록물군, 소장기관 및 소장내력 등에 대한 정보에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정분야별 콘텐츠들의 경우, 해당 주제 해설의 특정 부분을 설명하는 기록이 아니라 그 주제와 관련된 기록 전체 목록을 보여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가령, <해양주권 수호>에서는 비교적 상세한 주제설명을 하고 여기에 해양경찰백서 2005, 해양경찰백서 2003, 법제(1997. 6) 등의 기록(정확히 말하면 정부간행물)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관계가 막연하다. 또한 기록물철 목록이 집합적 기술과 연계되지도 않아 기록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 IV. 로컬리티 기록콘텐츠 개발의 방향

##### 1. 사례 종합 및 시사점

첫째, 미국의 경우 기록중심 콘텐츠를 많이 발견할 수 있었고, 특정 주제 설명을 위해 기록을 제시 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도 기록 설명에 많은 부분이 할애되고 있었다. 반면 <향토문화전자대전>이 나 국가기록원의 기록콘텐츠들은 대개 주제중심성이 강하고 기록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경우가 많 았다. 특히 <향토문화전자대전>의 경우 기록에 대한 설명이 들어갈 자리에 주제 설명이 들어가 있는 사례도 많았다.

둘째, 주제중심 콘텐츠의 경우 특히 관점의 편향성이 노출되기 쉬웠다. 국가기록원의 <새마을운 동> 콘텐츠가 그 사례이다. 반면 주제설명을 짧게 하는 대신 풍부한 맥락정보가 담긴 이차자료들을 연계하여 제공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Valley 아카이브), 이용자가 스스로 사회·역사적 맥락과 기록을 해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셋째, 외국 사례의 경우, 공공기록보다 민간기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고 종교기록, 개인기록, 가문기록 등을 중심으로 콘텐츠가 구축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텍스트 기록보다는 다양한 이미지, 동영상, 구술, 박물관 기록 등을 포함하고 있고, 매체와 형식의 다양성이 두드러졌다. 반면 국가기록원 의 경우 대체로 소장하고 있는 공문서나 사진기록 중심으로 콘텐츠가 구축되고 있고, <향토문화전 자대전>의 경우도 사진이나 음향자료 등 제한된 유형의 기록만을 포함하고 있었다.

넷째, 로컬리티 콘텐츠의 경우 기록뿐 아니라 통계, 신문기사, 지도 등 다양한 자료들이 활용될 경우 지역의 사건이나 활동을 다양하게 설명하는 데에 상당한 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의 경우 이러한 자료들을 포함한 기록콘텐츠를 찾기 어려웠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역사 콘텐츠라고 볼 수 있는 <향토문화전자대전>의 경우, 사업목적 중 하나로 아카이브 구축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에 적절한 기술정보(description)를 제공하는 체계가 부재하였다. 국가기록원의 주제중심 콘텐츠의 경우 대체로 맥락 기술, 기록 기술, 기록 및 자료, 연계 정보 등으로 구성되고 있었고, 맥락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기록의 의미와 가치 이해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기록 기술부분이 간략하거나 생략된 경우 더욱 그러했다. 또한 주제설명과 기록을 이어주는 정보가 미흡했다. <향토문화전자대전>의 경우 기록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데에 중요한 출처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았다.

여섯째, 대부분의 콘텐츠에서 기록이 건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어 기록이 파편적이거나 부조적 활용에 빠질 위험이 있었다. Calisphere의 사례에서와 같이 기록건이 계층적 검색도구(finding aids)나 집합적 기술로 연계될 경우 이러한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 2. 개발 방향

로컬리티 콘텐츠 개발시 특히 구조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기억과 기록의 간극을 고려한 다양한 기록자료 활용

로컬리티 기록화는 기억해야 할 지역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작업이다. 그러나 남겨야 하는 기억과 실제 남겨진 기록 간에는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간극을 메우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략이 구술사이지만, 기록콘텐츠를 개발할 때 다양한 자료와 기록을 활용한다면 이러한 간극을 부분적으로는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조정민은 부산 영도대교를 사례로 기록과 기억의 간극을 분석하고 있다. 1934년 11월 개통된 영도대교는 한국 최초의 연륙교이며 부산의 대표적 상징물이다. 한국에 남아있는 유일한 도개교(跳開橋)<sup>41)</sup>인 영도대교를 교량 노후화를 이유로 부산시가 2000년 11월 철거를 허가하자 이후 영도대교 철거에 대한 찬반 논쟁이 격화된다. 부산을 가꾸는 모임, ‘영도다리 어떻게 할 것인가? 자문위원회’ 등과 같은 시민단체들이 발족하여 영도대교의 의미와 가치를 주장하게 되는데, 이들에게 영도대교는 “동란의 비극을 온몸으로 버티어낸 민족의 다리”, “포화를 피해 내려온 피난민들”, “타향살이의 고단함과 서글픔”, “동란과 산업화” 경험의 상징이었다. 이러한 정서적 기억은 여러 가요나 문학작품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남아있는 기록(사진, 엽서, 우체국 소인 등)에서 영도대교는 대부분 “근대 과학미를 자랑하는 도진개교 부산대교”로 표상되어 있다.<sup>42)</sup>

41) 선박이 통과할 수 있도록 몸체가 위로 열리는 구조로 된 다리.

42) 조정민, “복원과 개발로 만들어지는 문화지형 - 영도대교와 롯데타운을 중심으로.” 『제1회 기획학술회의 : 로컬리티 시공간, 부산』(2012. 4. 6, 로컬리티 인문학 연구단), pp.93-110.

식민지 및 전쟁의 기억과 사사 속의 영도대교와 기록 속의 영도대교가 드러내는 이미지의 간극은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 이러한 간극은 특정 기록을 편향적으로 선택했을 때 더 두드러질 수 있다. 따라서 기록콘텐츠의 관점에서 보면, 다양한 기록과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근접한 답이 될 것이다. 다양한 시각의 기록 및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어느 정도는 메울 수 있다. 영도다리 보존을 주장하는 단체들의 자료, 20년대 이후 관련 신문기사, 연구 논문과 단행본(우리들 기억 속의 영도다리 사진첩(2007), 동아대학교 영도대교 실측조사 결과보고서(2008), 부산대관 등), 지도(부산고지도), 시민단체 기록, 개인 기록, 각종 문학작품 등이 다양한 기억을 드러내는 원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기록과 자료를 일련의 체계 속에서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기록콘텐츠 개발의 주요 전략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2) 기록을 통해 주제를 설명하는 콘텐츠 구조 설계

기록콘텐츠는 대체로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개발되기 때문에 목적에 맞는 구조를 취할 필요가 있다. <향토문화전자대전>의 경우 지역사 백과사전이라는 목적에 맞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지만 기록의 관점에서 볼 때 구조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 신뢰할 만한 콘텐츠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도 기록을 배치하고 연계하는 구조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 구조적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은 우선 기록의 배치방식이다. 주제와 관련된 기록을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배치된 기록을 따라가며 읽다보면 그 주제를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구조가 바람직하다. 이는 Valley Archives의 경우에서 같이 해당 주제 및 기록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핵심 항목만이라도 이러한 시도는 필요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정밀한 연계와 설명 없이 기록을 덩성덩성 보여주는 구조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

또한 주제중심형 구조가 갖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기록원을 비롯한 우리나라 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콘텐츠들은 주로 주제중심형으로 개발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지역콘텐츠 개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제중심형 콘텐츠의 경우 의도가 실재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고, 콘텐츠 설계자의 편향된 관점에 따라 기록 해석을 유도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접근법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 의도의 표출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가령, 서지사항과 기본적인 기술만을 기록과 함께 제공하거나 맥락 서술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사회·역사적 맥락을 기술하는 대신 언론자료나 연구자료 등을 제시한다면 맥락의 해석을 열어둔다는 이점이 있을 것이다. 둘째, 의도를 드러내는 방식이다. 관점에 따라 기록에 대한 다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콘텐츠 설계자의 관점과 의도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이용자가 주제적으로 콘텐츠를 평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전 국민이나 전 지역민을 독자로 삼아야 하는 기관에서 두 번째 방식만을 채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다양한 관점에서 주제를 설명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적어도 국가기록원 등 기록물관리기관은 사회적 역할 분담 차원에서 볼 때 주제중심형보다는 기록중심형 콘텐츠 개발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기록콘텐츠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좋은 기록을 발굴하여 제시하는 것이며, 수준 높은 해설과 설명은 다른 문화·교육 콘텐츠에서도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3) 기록물 기술 DB와의 연계

기록콘텐츠는 보통 특정 이용자집단에 맞게 기록의 맥락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쳐 개발되는 경우가 많다. 교육, 전시, 홍보 등의 목적에 따라 재구성의 형식도 달라질 것이다. 개별 기록건이 기록 집합체로부터 유리된 채 기획에 맞게 서술된 맥락 해설과 결합될 때 기록 본연의 증거가치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디지털 콘텐츠의 특징 자체가 해체와 결합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완전히 피해가기는 어렵겠지만, 기록콘텐츠의 경우 다른 디지털 콘텐츠와 달리 적어도 기록에 견고한 기술(archival description)을 결합시킴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는 피해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현재 <향토문화전자대전>사업에서도 각 지역의 개발주체들이 아카이브를 명실상부하게 구축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기록의 특징에 맞는 기술체계(descriptive system)를 갖추고 각 기록콘텐츠에 사용된 기록건들이 기술체계와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전자대전에 기술된 내용의 신뢰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대전의 각 항목 서술을 지속적으로 갱신해 나가는 데에 필요한 정보원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 국가기록원의 경우도 계층적 기술체계와 기록콘텐츠의 내용이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대규모의 복합형 기록콘텐츠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술체계의 구축이 전제되지 않으면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sup>43)</sup>

### 4) 이용자층을 고려한 구조

“모두를 만족시키는 서비스는 없다”는 것이 기록콘텐츠 서비스의 특징이다. 따라서 대상 이용자층이 누구인지 명확히 설정하고 설계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sup>44)</sup> 우지원, 이영학은 과거사 위원회의 기록콘텐츠 개발과 관련한 연구에서 동일한 주제인 경우에도 이용자층에 따라 콘텐츠를 달리 설계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준다.<sup>45)</sup> 교수자, 학생, 연구자별로 과거사와 관련하여 콘텐츠 개발이 필요한 주제항목이나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에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교강사나 연구자가 모두 과거사 기록콘텐츠 개발 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으로 “새로운 기록물의 발굴과 소개”를 가장

43) 국가기록원의 국정과제별 콘텐츠는 비용과 노력을 투여하여 6천 개에 달하는 콘텐츠를 구축하였지만 현재 지속가능성(주제 해설의 지속적 갱신 필요)과 활용성(기록 연계의 난조)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판단됨.

44) 설문원, “기록정보서비스의 방향과 과제,” 상계서, pp.10-19.

45) 이영학, 우지원, “과거사 관련 위원회 기록정보콘텐츠 구축방안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1권, 제1호(2011. 6), pp.67-92.

우선적으로 꼽았다는 것은 전문가 대상의 기록콘텐츠 개발에서 주력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말해준다.

〈향토문화전자대전〉의 경우 “개괄적, 안내 정보적 성격의 토픽에서부터 전문 지식 차원의 심층 지식정보 데이터까지 단계적으로 접근해 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반인에서 학술연구자에 이르는 광범위한 이용자의 정보 수요를 만족시키도록 함”을 목표로 표방하고 있다.<sup>46)</sup> 일반인은 물론 학술 연구자까지 이용자층에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라도 관련 정보원 및 기록에 대한 체계적 해설과 축적이 필요할 것이다. 국가기록원의 〈내고향 역사찾기〉도 연구자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인 만큼 〈일제강점기 지방행정구역 변천 연혁〉등과 같은 제목이 적절할 것이다. 이밖에도 국가기록원은 건축도면 콘텐츠, 4·19 이후 공민권 제한 관련 재판기록 콘텐츠 등 많은 연구자용 콘텐츠와 대통령선거의 역사 등과 같이 일반인들을 위한 콘텐츠를 다수 개발하고 있는데 양자의 구조는 다르게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 V. 맺음말

며칠 전 서울시가 기록원을 설립한다는 낭보를 접했다. 이를 시작으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속속 설치되어야 할 것이며, 이들 기관들은 앞으로 지역의 가치 있는 기록들을 주체적으로 수집·관리하는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로컬리티 기록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질문해야 할 점은 지역에 관한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하는가이다. 흔히 기록은 역사의 증거이며, 기억을 담는 그릇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i) 행위의 증거인 기록이 온전히 보존되었을 때 행위를 입증하는 기록의 증거 가치와 ii) 남길만한 기억을 선별하여 일정한 틀 속에 담길 때에 드러나는 기록의 가치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가치인 듯 보인다. 증거와 기억이라는 기록의 가치는 기록관리 실무의 각기 다른 측면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록관리에서 양자는 다른 한 쪽이 없다면 가치를 잃고 마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믿을 만한 증거가 없다면 기억은 조작이나 상상으로 전락될 수 있고, 기억할 필요가 없다면 그 증거는 무용해질 것이다.<sup>47)</sup>

기록콘텐츠 주제를 선정할 때도 남겨진 기록을 중심으로 콘텐츠를 구성하는 방법, 기억해야 할 주제를 정하고 콘텐츠를 설계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로컬리티 기록콘텐츠 주제를 정할

46) 〈<http://www.grandculture.net/about/detail.asp>〉[인용 2012. 5. 10].

47) Terry Cook은 증거와 기억의 개념 간에는 해소되지 않은 긴장관계가 있으나 이는 매우 생산적인 관계임을 설명한 바 있다. Terry Cook, “Beyond the Screen: The Records Continuum and Archival Cultural Heritage,” paper delivered at the Australian Society of Archivists Conference, Melbourne, 18 August 2000; available at 〈<http://www.archivists.org.au/sem/conf3000/terrycook.pdf>〉 (accessed on 1 March 2005).



때 기록조사와 주제선정을 위한 맥락연구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주제는 적절하나 남겨진 기록이 전혀 없다면 기록콘텐츠 개발이 어려울 것이며, 반대로 기록은 존재하나 로컬리티 측면에서 적절한 주제와 연관된 기록이 아닐 경우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무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특히 로컬리티 콘텐츠와 관련하여 지역의 아키비스트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지에 대해 능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의 역사, 특히, 주변부 공동체나 소외된 지역의 경우 의도적 노력이 없으면 이들에 대한 기억은 역사에서 사라져버린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기록을 수집하고 생성하는 작업은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기억하고 싶은 “그 ‘어떤 것’만을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맥락에서 균형 있게 자리를 매기고, ‘어떤 것’들을 사회사의 날줄로 삼아 다시 섞어 짜”는 방식의 콘텐츠 개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sup>48)</sup>

## 참고문헌

- 류한조, 김익한. “기록 콘텐츠 개발 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9권, 제1호(2009. 6). pp.221-248.
- 설문원, 김익한. “이승만시기 국무회의록과 정부부처 기록의 연관구조분석에 기반한 역사컨텐츠 설계 방안.”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17권, 제2호(2006. 12), pp.115-136.
- 설문원. “기록정보서비스의 방향과 과제.” 기록인, 여름호, Vol.3(2008. 6), pp.10-19.
- 설문원. “디지털 환경에서의 로컬리티 기록화 방법론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1권, 제1호(2011. 6), pp.207-230.
- 설문원.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제32호(2012. 4), pp.3-44.
- 심성보.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콘텐츠 서비스의 구성 및 개발.” 기록학연구, 제16권(2007. 10), pp.201-256.
- 양홍숙. 부산 로컬리티 탐구 : 『디지털부산역사문화대전』을 중심으로. 『제1회 SKK 로컬리티의 기록화 컬로퀴엄 자료집』(2010. 11. 19), pp.21-37.
- 윤은하. “북미 기록학의 동향과 전망 : 패러다임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1권, 제2호(2011. 12), pp.78-94.
- 이영석. “미시사, 그 가능성과 한계.” 출판저널, 320호, 2002. 3. 20.
- 이영학, 우지원. “과거사 관련 위원회 기록정보콘텐츠 구축방안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1권, 제1호(2011. 6), pp.67-92.

48) 이영석, “미시사, 그 가능성과 한계,” 출판저널, 320호(2002. 3. 20).

2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3권 제2호)

이은영. “교육과정 분석에 따른 교육용 기록정보콘텐츠의 예시 설계.”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1권, 제2호(2011. 12), pp.165-188.

전수진. “보존기록관리기관의 온라인 콘텐츠 유형과 특징.”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8집, 제2호(2008. 12), pp.127-152.

조정민. 복원과 개발로 만들어지는 문화지형 - 영도대교와 롯데타운을 중심으로. 『제1회 기획학술회의 : 로컬리티 시공간, 부산』(2012. 4. 6. 로컬리티 인문학 연구단), pp.93-110.

조지형. 랭케 & 카: 역사의 진실을 찾아서(국내 젊은 학자들이 새롭게 해석한 동서양 지식인 100인의 지도). 파주 : 김영사, 2006.